

哲學教材 改編의 필요성과 그 方向

— 새로운 敎養教材 개발 ⑤ —

李 秉 昌

(東亞大 哲學科)

새로운 敎養教材 개발

1. 學問의 主體性 확립과 土着化의 과제
2. 새로운 政治學을 위한 모색
3. 새로운 韓國史像과 敎材 開發
4. 社會學 교양교재 개발의 意義와 展望
5. 哲學敎材 改編의 필요성과 그 方向
6. 女性學

1. 哲學敎材 개편의 必要性

대학에서의 敎養哲學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최근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교양철학을 담당하는 많은 강사들이 곤혹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교양철학을 수강한 학생들 역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해 왔다. 문제는 이런 질적인 차원에서만 벌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실제 양적인 차원에서 교양철학 시간이 각 대학에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유신체제 이전만 해도 교양으로서 哲學概論 과목은 각 대학에서 교양필수로서 자리잡아 있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조차 철학

이 가르쳐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哲學敎育을 위한 유일한 보루였다. 그런데 '70년대 유신체제가 강화되면서 國民倫理가 국책과목으로 교양 필수화되자, 철학은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교양선택으로 격하되었다. 최근 국책과목이 폐지되고 교양과목이 개편될 때, 철학과목은 많은 뜻있는 인사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교양필수로서의 본래 자기 자리를 되찾지 못했다. 그 결과 교양철학 시간이 유신체제 때보다 양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과거 국민윤리가 國策科目이었을 때, 그 내용의 일부는 철학이었고 또 많은 철학전공 강사들이 이를 담당하면서 철학 강의의 기회로 삼았기에 그럭저럭 철학교육의 기회는 유지되었으나 그마저 사라졌기 때문이다.

철학교육이 대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다른 나라라면 이미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그럼으로써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독재정권의 愚民化 정책에 의해서 실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나마 유지되던 대학에서의 철학교육조차도 오늘날 이 모양이 되었다는 것은 대학에서 철학교육

을 담당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대학교육 담당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더구나 과거 유신체제의 경우라면 정부의 강압으로 힘없는 대학교육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강압이 줄어들고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교양과목을 개편한 결과가 이렇다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시대적 분위기에 기인하는지 모른다. 오늘날 새로운 허무주의, 즉 樂觀的 虛無主義가 등장한 이래로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거부한다. 그저 即物的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회의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에서 철학이란 과목은 구시대의 삶에 대한 고민에 쩌들려 있는 유물같은 것에 불과할런지 모른다. 아니면 그것은 오늘날 각 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기인하는지 모른다. 지금의 대학은 과거 대학과는 달리 이 사회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技術的 專門人力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략한 느낌을 받는다. 학생들이 자신이 취직에 대한 고려를 제일로 삼고 있는 한, 이런 기술과는 달리 인문 교양과목 가운데 하나이며 반성적 사고를 가르치는 과목으로서 철학이 환영받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이러한 진단이 교양철학이 위기에 처한 根本的原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우리 대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찌면 과거보다 더 진지하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혼미에 싸여 있는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에게 부여된 民族史的 責任을 다 하려 하고 있다. 암울한 시대의 지성으로서 이들은 과거처럼 낭만적이지 않고 냉철하고 엄격하게 과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虛無主義는 아직 거리가 멀다. 더구나 이제 새로운 기술혁명의 단계에 이른 마당에 산업에서도 더 이상 단순히 한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에 매몰된 인간을 원하지 않는다. 오늘날 산업이 요구하는 인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이고, 그러기에 각 대학에서는 과학·문화·역사·철학에 대한 統合的 敎育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양철학에 대한 요구가

시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학생들이 과거 이상으로 많은 교양철학 관련 서적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읽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敎養哲學이 쇠퇴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오히려 교육을 담당한 강사나 교과서 자체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철학과목을 수강한 학생에게 한 학기 지나서 물어보면 대개 이렇게 대답한다. “철학은 매우 어려워요. 도대체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표현은 단순히 철학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전문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어떤 과학도 마찬가지이고, 아니 철학 이상일 것이다. 사실 최근에 어려운 철학을 피하고 쉬운 철학을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투로 전개된 교과서를 읽은 학생들조차 “재미는 있는데 여전히 철학이 어렵고 또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을 본다면,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때에는 다른 意味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실제 철학 강의가 이루어지는 매개체인 교과서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기존의 哲學敎科書 分析

현재 각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철학교과서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과장을 섞어 말한다면 교양철학을 담당하는 강사마다 하나의 교과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 모든 교과서를 분석한다는 것은 문제제기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이 글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 글에서는 다만 몇 가지 최근에 자주 사용되고 또 필자가 구해본 것에 한정하기로 하자. 당연히 이 글에서의 분석은 주관적일 수 있음을 미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

① 哲學史的 敎과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던 교과서가 철학사적 유형의 교과서일 것이다. 이런 교과서를 이용하는 경우, 때로는 시대별로 주요한 철학자들을 드문드문 선택하여 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고전 그리스 철학에 한정되고 마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런 철학사를 사상사적 접근을 통하여 가르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철학의 內的 論理가 주로 다루어진다. 예를 들자면 ‘칸트’가 주제로 제기되었을 경우에 칸트의 생애나 그 시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칸트의 주요 업적인 인식론에서의 구성설에 대해 논한 다음 그의 윤리학과 종교철학 등이 제시된다.

② 問題中心的 교과서

최근 들어와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철학의 주요 문제들이 문제중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때 다루어지는 문제들을 그 대표적인 교과서인 『어떻게 철학을 할 것인가』(프레드 A. 위스트팔, 까치)를 통해서 본다면 다음과 같다: 1장 철학이란 무엇인가, 2장 신의 문제, 3장 정신과 불멸성, 4장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 5장 윤리의 문제, 6장 인식의 문제. 다른 교과서에서는 위에 나온 문제들 외에 정치철학의 문제나 미학적 문제들을 아울러 다루기도 한다. 이에 속하는 교과서에는 사변적 기질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주로 최근 언어 분석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교과서가 많다. 이것은 이런 식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주로 언어분석철학을 담당하는 사람들라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③ 맑스主義的 교과서

'80년대 들어와서 우리 사회의 變革運動이 조조되는 것에 발맞추어 맑스주의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따라서 많은 맑스주의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이에 속하는 모든 교과서는 동일한 문제들을 다룬다. 즉, 철학과 세계관, 물질과 의식, 유물론적 변증법, 세계인식, 사적 유물론, 사회의 토대와 상부구조, 계급투쟁과 혁명,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 등이다. 아직 우리 대학에서 이런 유형의 교과서가 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이것을 개별적으로 읽고 있으며, 이런 교과서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

④ 原典 讀解式 교과서

대학에서 가끔 이용되는 교과서의 하나가 주요 철학자들의 原典을 발췌 또는 전문 수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원전에 접하도록 만드

는 교과서이다. 이런 교과서는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 독해하기가 난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조 교재 또는 티포트용 교재로 이용하고 직접 교재로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 경우에도 다만 교수들이 강의하는 데 참조로 이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교재들의 경우,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문제제기의 高踏性

어떻게 보면 모든 교과서는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문제중심적이든, 역사적이든, 맑스주의적이든, 원전식이든간에 다루는 문제는 모두 매우 추상적인 것들이다. 역사적 유형의 교과서는 여러 문제를 한 철학자에서 묶어서 말하고, 맑스주의적 교과서는 사회·역사의 문제들을 상당히 주요하게 제기하며, 원전식은 원전을 직접 제시한다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루는 문제 또는 강의되는 내용은 모두 문제중심적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이다.

그런 문제들이 철학에서 주요한 또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 문제들은 주요한 또는 근본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제시되는 方式은 매우 고답적이다. 예를 들어서 의식이 독립적인 실체인가 아니면 물질에 의존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문제중심적 교과서에서는 정신과 불멸성 장에서 다루어지며, 맑스주의적 교과서에서는 물질과 의식 장에서 다루어진다) 직접적으로 제기되어 있다. 학생들은 다짜고짜로 그런 문제로 이끌려진다. 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그런 점에서 高踏的이다.

물론 강사는 이런 문제에 대한 유물론의 입장이나 관념론의 입장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재미난 예를 들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며 엄격한 논증을 일일이 따져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대개의 경우, 이런 문제에 대한 강사의 설명을 납득한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왜 그런 문제를 철학이 다루어야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기에 이러한 설명 끝에 학생들이 느

끼는 것에 대해서 말해 보라고 하면 어렵고 도통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설명이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제기되는 문제가 그들에게 理解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난해한 것은 유물론이나 관념론이 아니다. 바로 그런 문제에 무슨 목숨을 걸 것처럼 떠들고 있는 哲學者 자신이 난해한 것이다.

2) 문제의 抽象性

앞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철학강의 시간에 기대하는 것과, 교양철학을 담당하는 철학 전공자들이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것이 매우 다른 것 같다. 학생들은 철학시간에 교회의 목사나 사찰의 스님이 말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한다. 말하자면 實踐的 思想의 문제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인생의 의미, 사랑의 방법, 죽음, 우정의 문제를 고민한다. 나아가서 그들은 오늘날이 시대적인 고민에 눈뜨기 시작한다. 사회의 민주화와 부정의의 척결, 민족의 장래와 세계의 평화 등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엄중한 과제 앞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에 부딪힌다. 이러한 사상적·실천적 문제를 그들은 철학 시간에 당연히 들을 것으로 기대하고 강의에 임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교양철학 강의시간에 들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 문제는 앞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문제들, 즉 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정신이라는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인식은 가능한가? 이성인 인식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감각적 지식은 확실한가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런 문제들은 科學의 전제이고 과학의 방법에 대한 문제, 즉 이론적·추상적인 문제이다. 물론 과학이 삶의 문제를 푸는 한 방식이고, 철학의 이론적·추상적 문제가 과학의 전제와 방법을 검토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삶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직접적 요구와는 일단 거리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지금까지의 철학교과서는 대개 이런 차이를 무시해 왔다. 그저 학생들이 바라는 思想的·實踐的 問題들은 철학이 다루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끊어서 말하고 만다. 철학은 물리학이나 화학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고유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철학을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가? 물론 전문적인 철학전공 강의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하겠지만, 敎養哲學으로서의 철학강의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가? 오히려 교양강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런 사상적·실천적 문제가 아닌가? 물론 철학강의가 설교나 법회는 아니다. 학생들을 단순히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것으로 철학이 그 목적을 다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실천적·사상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철학 나름의 고유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철학이 학생들이 바라는 것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철학 나름대로의 고유한 方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3) 對話式 교과서

또 위와 이어지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대학에서의 강의는 고등학교에서와는 달리 어떤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사고하도록 촉발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더구나 철학은 이른바 對話의 學問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날 대학에서 교양철학 강의는 거의 대부분 주입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대학의 현실을 알고 있는 강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드는 강의실에서 대화식 강의를 해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안다. 이런 처지에 대화식으로 강의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준비를 시켜도 학생 스스로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오지 않는다. 대화를 원하는 그 학생들이 사실 대화식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준비는 게을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두 손을 놓고 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학생들의 게으름을 비난하는 것으로 교

양철학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화식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모색에 모색을 거듭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양철학 敎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재는 왜 필요한 것인가?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재는 강의시간에 활용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강의는 강사 자신의 노트에 의존하고 있다. 교재는 기껏해야 시험을 위한 준비서로서 이용되는데 실상 그것조차 별로 이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교재를 구입하지 않는다. 구입하더라도 대개 강의 시간에 들고 나오는 예는 드물다. 왜 그런 것인가? 교재가 이토록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점에서 필자는 만일 교재가 대화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면 교재의 활용률도 높일 수 있고 비록 대단위이고 학생들이 불충분하게 준비해 오더라도 강의를 대화식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대화식 강의를 위한 교재는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 솔직히 말해서 필자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 위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되는 예를 소개한다.

“정양,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책입니다.”

“책이라고 말했는데 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지?”

“눈으로 보아서 압니다.”

“그렇다면 장님은 이것이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까?”

“손으로 만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양, 이번에는 우리들의 관심의 방향을 좀 바꾸어 보기로 하세. 한 살 먹은 아이도 이것이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한 살 먹은 어린아이도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일텐데 어찌서 이것이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까?”

“.....”

“정양, 그렇다면 좋아. 이제는 정양 자신의 문

제로 돌아가서 대화를 해 보도록 하기로 하세. 내 손에 있는 이것이 책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금 누구인가?”

“저 자신입니다.”

“정양이 지금 저 자신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곧 나라는 말이겠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양의 ‘나’와 정양 옆에서 지금 이마를 잔뜩 찌푸리고 심각하게 앉아 있는 송군의 ‘나’와는 서로 다른 ‘나’인가 아닌가?”

“물론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양의 ‘나’가 이것을 책으로 안다면, 송군의 ‘나’는 이것을 다른 것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

“정양, 도대체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

“정양, 그렇다면 정양의 ‘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강영계, 『철학에 이르는 길』, 서광사, 1984, 101~102 쪽)

위에서 인용된 글은 대화식 강의의 한 모범이며,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問題意識을 일으키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오도록 만들어진 한 예이다. 필자 자신은 이러한 대화에서 학생들은 역시 당황하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대화에서 학생은 결국 ‘안다는 것’ 또는 ‘나’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계는 있지만, 대화식 강의와 대화적 교재의 한 예이므로 참조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나온 이런 교과서들의 문제가 역시 교양철학 강의의 문제이기도 하며, 바로 그렇기에 철학 강의로부터 학생들이 점차 멀어져 나갔다고 생각한다. 필자 자신은 아무튼 철학은 강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쓴 약을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철학처럼 학생들의 정신을 달달 묶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에도 한계는 있고 언젠가 그 강제는 무시되기 마련인데, 이제 그러한 시기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도 철학 강의에 학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철학 강의는 개편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代替教科書의 개발 방향

최근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철학 강의 및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교과서를 개발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는 것 같다. 그 가운데 최초로 성과를 보여준 것은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소장철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만들어낸 『삶, 사회, 과학』(동녘, 1991)이다. 여기서 이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대체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삶, 사회, 과학』은 그 제목 자체부터 철학을 우리의 삶의 現場과 연결시키려는 意識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식은 책머리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철학을 정말 생동적인 것으로 되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삶의 근본 문제, 즉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살 것인가 등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식은 책의 주제를 배치한 순서에서도 나타난다. 제 1부 삶과 죽음: 1장 삶과 죽음, 2장 자의식과 욕망, 3장 노동과 소외, 4장 성과 가족. 제 2부 사회와 철학: 5장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발전, 6장 정의와 평등, 7장 민주주의와 국가, 8장 이데올로기와 문화. 제 3부 과학과 철학: 9장 과학과 세계관, 10장 진리와 인식, 11장 자연과 의식, 12장 역사와 변혁. 이런 순서는 삶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마지막으로 철학의 이론적인 문제로 나아가고 있어서 기존의 철학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이론적·추상적 문제가 대폭 감소되고 구체적 삶의 문제가 전면에서 등장했다.

특히 이 책은 '80년대 후반 민족민주운동이 발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思想的 課題에 대한 고민 끝에 나왔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 책은 많은 점에서 한국사회 변혁의 주체세력으로서 노동자 대중의 관점, 즉 노동과 실

천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이해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구절 가운데서 확인될 수 있다.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 책의 전체를 꿰뚫는 중심축이 인간의 활동, 특히 그 중에서도 意識의이고 合目的의 勞動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금세 알아차릴 것으로 믿는다.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노동의 산물이며,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자 올바른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열쇠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서술에 있어서 立體的 構造를 갖추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단순히 어떤 입장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립되는 입장을 제시하고 그것과 변증법적으로 대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문제의식을 갖고 도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그 문제의식을 구현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교재의 많은 주제들은 아직 平面的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기에 철학 강의에서 필요한 대화적 접근을 하는데 이 교과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실제로 내용에서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철학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런 철학적 문제들은 삶에 다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많은 설명들은 대단히 高踏의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삶의 구체적이고 실천적 문제들이 주제로 대폭 도입되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본래의 의도조차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意味 있는 失敗’로 보여진다.

앞으로 또 많은 의미있는 실패작으로서의 교과서가 개발될 것이다. 필자로서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개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래야 철학교육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럼으로써 철학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부족하여 만일 필자에게 새로운 교과서의 모형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실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작품들, 재관이

나 정신병치료 기록 등을 보면 어떤 시대적인 조건하에서 각 개인들은 고민 끝에 어떤 결단을 내린다. 학생들에게 이런 결단들을 나름대로 평가해 보라고 한다면 어떨까? 교과서에 소설이나 각종 기록을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상황이나 결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그런 소개로 부족하면 강의 시간에 강사가 이를 보충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 나오는 정치가나, 나아가 그 시대의 고민을 가장 참여하게 느끼고 사색했던 철학자의 삶에 대한 기록을 보여 줄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학생들의 評價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예 좀더 대담하게 연극이나 영화를 강의 시간에 도입하면 어떨까? 이미 학생들은 영상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 오늘날 말과 대화 만으로는 학생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없을 지경이다. 학생들의 映像文化에 맞추어 철학 강의에서도 이런 영상문화를 도입해도 될 것 같다. 사실 많은 영화나 연극은 대단히 심각한 철학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哲學的 問題를 발굴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를 위해서는 강사가 학생들의 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

다. 물론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면, 학생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언젠가 강사가 나서서 문제를 정리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차라리 이를 기다린다. 필자 자신 이 점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 경험을 반성해 볼 때, 항상 필자 자신이 기다리기에 지쳐서 먼저 나섰던 것이 탈이었다. 처음에는 뒤죽박죽이 되어도 좋다는 식으로 학생들을 내비려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교과서에는 이렇게 발굴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간략히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 구태여 이 부분을 새로 집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과거 철학자들이 고민한 것 가운데서 이 부분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과거 철학자들이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또 과거 철학자들의 고민을 보여줌으로써 철학자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깊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학생들이 부딪히는 삶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이 철학 강의에 보다 과감히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철학 강의가 고답적이지 않고 생동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재가 강의 시간에 대화를 유도하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